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신입회원 입회 안내

◉ 사단법인 한국시조문학진흥회는 시조시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2004. 5. 25.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본회는 창립 취지에 찬동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입회를 원하시는 분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홈페이지에 있는 입회원서 작성)를 밟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하시고 약력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셔서 E-mail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ijomunhak.com
- E-mail: sijini@hanmail.net

* 연락처: 사무국장 겸 기획위원 김미경 010-4535-3165
기획위원 겸 상임편집위원 함세린 010-5648-5800
기획위원장 상임편집위원 정유지 010-7475-5295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창립 및 제4기 (2014~'16) 임원진 등 조직 구성 요지

▶ 2003. 3. 29.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창립총회

▶ 2004. 3. 28.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정관 제정(定款 전문全文 시진회 홈페이지에 있음)

▶ 2004. 5. 25. 시조시인단체로서 최초 사단법인 설립허가(서울특별시)

▶ 정관 제11조 및 제39조에 따라 임원은 이사장 1인(현 김락기), 부이사장 1인(현 리강룡), 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 이사 8인(현 김인자, 송귀영, 오병두, 한재희, 조경순 등), 감사 2인(현 김흥열, 차도연)으로,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현 김미경)과 필요직원(현 사무차장 이복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관련 조직으로 본회에는 고문단(현 심응문, 이정자), 자문위원단(전규태, 박영교, 우희원, 임선묵, 문무학, 김세환, 이근구, 권갑하, 박근모, 김흥열, 문복선, 최승호, 신연우, 성철용, 신웅순, 심성보, 원용우, 이광녕, 김민정, 이석규, 임종찬, 장지성, 전선구, 전연욱, 서지원, 이승욱, 정유지, 한분순, 한종구, 임종각, 김성호, 이수화, 정선교, 채현병, 정진상, 임병웅, 심승철, 허도성, 김명선, 신종배, 이주해, 김선국, 권해근, 박희준, 최진구, 권혁상, 최지원, 전형범, 이한복, 김재식 등), 명예임원단(박근모, 김보영, 김영덕, 서공식, 유권재, 정정조, 최길하, 최봉희,최원익, 김신아, 문현 등), 기획위원회(정유지, 김미경, 함세린, 최정란, 조경순, 이인자, 정기영, 이상목 등), 홍보 · 편집 · 총무위원회(박근모, 노우혁, 정명훈, 안승남, 오병두, 임연혁, 임병웅, 임종민, 채현병, 김일영, 신강우, 최명기, 김토배, 한재희, 진규영, 이문형, 전재영 등), 홈운영위원단(성철용, 윤광제, 김미경, 김신아, 이복동, 최원익 등), 기관지 상임편집위원(정유지, 김미경, 함세린, 한재희, 노우혁 등), 편집위원(김흥열, 송귀영, 김인자, 조경순, 오병두, 차도연 등), 정회원(위 임원진 및 각 위원 외 문근영, 이종갑, 이홍구, 우은진, 송승환, 정형석, 김현서, 김갑주, 김경문, 김호성, 김현홍, 이예숙, 서미경, 서인희, 최운선, 김희경, 박미향, 이미선, 이원구, 오순숙, 이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본회의 정신적 명예고문역할을 하시는 정완영 원로시조시인 등이 계심.

시조시인 탐방– 문학사를 빛낸 인물

백수 정완영 선생을 찾아서

취재 · 글: 최정란 기획위원

▣ 문학세계

우리글의 빼어난 연금술사인 시조 문학의 거목이신 시조시인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세계를 살펴본다.

3 · 1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에서 백수 정완영이 태어났다. 훗날 한국 현대시조의 대가가 된 백수의 어린 시절 아명兒名은 '진방辰房'이었다. 백수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별이 방으로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 해서 진방이라 불렸다. '별이 쏟아진다'는 아명답게 백수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글을 잘 외워 인근 동리에서 신동으로 불릴 정도였다. 백수의 어린 시절은 늘 할아버지와 함께였다. 한학을 공부한 백수의 할아버지는 영락없는 선비였다.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며 어려운 세월을 한탄했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린 백수 역시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학동도 아닌 꼬맹이 주제에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곁눈질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어린 나이라 글의 의미를 알까 싶었지만 백수의 실력은 여느 아이들의 문장력을 넘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한학은 물론 불교와 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던 백수의 할아버지는 훗날 유 · 불 · 선을 넘나드는 백수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백수는 마을 뒤편의 황악산을 늘 마음에 품었다. 김천을 내려다보는 황악산은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백수는 늘 황악산과 자신을 연결시키려 했다. 평소 백수는 제자들에게 "내 생일이 11월11일인데, 황악산도 1천111m"라며 고향의 산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다. 백수의 고향사랑은 그의 호號에서도 드러난다. 정완영의 호 '백수白水'는 김천의 샘 '천泉' 자의 파자로 '백' 자와 '수' 자를 각각 붙인 것이다.

백수는 보통학교 재학 당시 큰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는 점점 심해진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다. 당시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앞세워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고리의 돈을 빌린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 농토를 빼앗기고 말았다. 백수의 집은 그나마 살 만했지만 곧 어려움에 직면한다. 백수가 봉계공립보통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백수의 집 소유의 논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농사를 실패하고 도저히 삶을 꾸려갈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백수의 아버지와 백수는 일본행을 선택한다. 백수의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 혼처가 들어온 백수의 형은 조선에 남았다. 백수는 이후 아버지와 함께 일본 곳곳을 유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지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결국 백수의 아버지는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곧 김천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백수는 한동안 일본생활을 이어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수는 일본 오사카 천왕사 야간 부기학교에 입학, 2년간 공부에 열정을 쏟는다. 그리고 1937년 고향 김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 시 창작에 영향을 주신 스승

시조창작에 인연을 준 사람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조선어 시간에 동요를 열심히 가르쳐주던 홍성린 선생과 일본에서 돌아와 5학년에 편입했을 때 일본인 교장 몰래 시조와 우리역사를 가르쳐주던 이위응 선생이다.

백수는 두 스승으로부터 우리의 전통가락과 시조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는 민족정서를 고취시키려는 교사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곧 두 교사는 다른 학교로 떠났지만 백수가 시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인연이었다. 이후 시조를 탐닉하기 시작한 백수는 시조시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백수의 젊은 시절, 또 다른 스승은 한국 시조시단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인 조운曺雲 선생이었다. 백수 스스로도 "나의 스승은 조운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백수는 조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조운의 문하생은 아니었지만 조운의 문학세계를 동경했다. '경상도 사람으로는 張 應斗(호 何步)와 전라도사람으론 영암태생의 曺雲의 시조를 많이 봤습니다. 何步는 아호처럼 '썩은 세상을 어찌하며 걸어 갈 것인가'라는 암시를 준 멋진 시조인 이었습니다. 나 역시 하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보선생의 영향을 받아 백수선생님도 세상을 맑게 살아오신 분이다. 홀로 하는 시조 공부였지만 즐거웠기에 외롭지 않았다고 하신다..

시조 시, 엄마 목소리와 조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수 정완영 선생'은 1919년 경북 김천시 봉산면 봉계에서 출생하여 일본제국시절 일본군에 항일하는 등 조국의 아픔을 몸소 겪은 산고의 고통이 선생의 시조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1946년「김천 시문학구락부」에서『오동』이란 동인집을 2집까지 내다가 중단했으며, 6 · 25피난 후 김천에서 "白水社"라는 문구점을 차렸었고, 동네사람들은 그를 白主事라 부르기도 했다.

백수는 시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작가로서 원활한 활동을 펼치려면 '등단'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했지만 백수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백수의 등단은 1962년《조국》이라는 제목의 시조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다. 물론 백수는 조국 당선 이전에도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이상하리만치 등단에는 얽매이지 않았다. 등단을 멀리하는 백수의 모습에 주변의 지인들이 더 답답함을 느꼈다. 결국 백수의 행동을 참지 못한 백수의 처남이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에 백수의 작품을 몰래 출품한다. 그때 투고한 작품이《해바라기》와《애모》였는데 해바라기가 당선된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백수의 다른 작품《애모》에 관심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백수의 시조《애모》를 청마 유치환 선생에게 보여주었고, 이후 1962년 문예지 현대문학에 백수의 시조《해바라기》,《애모》,《강》 등이 실려 문예지에도 등단을 하게 된다.

62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선일보〉신춘문예에《祖國》을 보내 당선되었을 때가 42세였고, 정완영은 이때를 出壇이라 생각한다.

1966년에는 이호우 · 이영도 · 이우출과 함께 〈영남시조문학회〉를 창립한다. 1967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해바라기처럼》이 당선되었고, 제2회 〈김천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당시의 문인들 사이에서는 신춘문예보다 문예지 등단을 높이 샀다고 전해진다. 이후 백수는 등단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 선생님의 양친

白水 鄭椀永은 1919년 11월 11일 경북 금릉군 봉산면 예지동 65번지에서 父 知鎔, 母 延安田氏 俊生의 4남2녀 중 2남으로 태어난다. 본관은 延日이며 조부 염기로부터 한학을 배운다. 1927년에는 봉계공립보통학교 입학하였으나 3학년 여름 홍수로 말미암아 단수 5마지기가 유실됨에 따라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할아버지와 어머니 와 형은 김천에 두고 아버지와 함께 건너간다. 1932년 대판 천황사 야간부기학교 입학, 2년 수료 후 고향에 다시 돌아와 보통학교를 마치고, 1938년에는 성산 김씨 주배의 장녀 덕행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두셨다.

백수선생은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어머니에 관한 효심이 깊어서, 읽는 이의 가슴을 적셔놓는다. 필자도 동시조를 매우 좋아한다. 마치 맑은 샘물 같다.

詩作의 모태가 된 고향, 외갓집, 외할머니,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시며 경북 상주군 모동면 수봉리 오도티 마을의 외갓집에 가시던 날을 자주 이야기하신다. 얼마 전에도 선생님 모시고 다녀왔다.

백수정완영시인은 늘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추풍령을 넘어 황간역에 내려 버스가 드문드문 있던 옛날에 어머니 손잡고 재를 넘어 오도티 마을 외갓집에 가셨다고 한다. 어린 소년은 역에 내리면 마음은 벌써 외갓집마당에 가 있었다고 한다.

'느티나무' '샛도랑'기억을 다 해내시곤 외할머니와 어머님 생각을 하신다.

그런 시인 백수선생님의 외갓집 가는 길로 통하는 역이었음을 기리는 시를 황간역에선 장독대며 시화로 그린 시화전도 자주 하고 선생님 시로 만든 노래로 테마를 둔 음악회도 열고 황간역을 시詩의 역驛이라고 명명하고 시의 역장님으로 우대했다.

황간역 강병규 역장은 고교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있고 평생 존경해 온 문단의 거목이신 백수시인의 외갓집 가는 길목으로 누구나의 고향역으로 시골역장의 세심한 손길에 따라 소박하지만 특별하게 가꾸어 가는 추억의 장소가 되리라고 믿는다.

'어머님은 49세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 가셨지요. 또 8년째 치매를 앓던 아내, 아이 둘을 남기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엾은 며느리...이들을 생각하며 내 놓은 童時調集이 바로『엄마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동시조집『엄마목소리』에서 몇 편 소개한다.

엄마 목소리

보리밭 건너오는 봄바람이 더 환하냐
징검다리 건너오는 시냇물이 더 환하냐
아니다 엄마 목소리 목소리가 더 환하다.
혼자 핀 살구나무 꽃그늘이 더 환하냐
눈감고도 찾아드는 골목길이 더 환하냐
아니다 엄마 목소리 그 목소리 더 환하다.

봄 오는 소리

별빛도 소근소근
상추씨도 소곤소곤
물오른 살구나무
꽃가지도 소곤소곤
밤새 내
내 귀가 가려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 선생님의 시론

백수선생은 학력이 없다. 공부대신 방방곡곡 유랑생활로 감성적 시를 담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시는 아주 솔직하다. 그의 남다른 고난 경험과 풍부한 한국정서감정이 백수선생의 소리다. 이른바 고학력에서 발견되는 손끝의 '말장난' 이 없다. 청정채소다. 우리는 그런 맑은 문학을 먹고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된다. 마치 국민들에게 주는 정신적 보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다.

시조란 대저 자유시와는 달리 이미지이니 무슨 주의니에 앞서 境을 열줄 알아야 되는 우리 전래의 정신에 뿌리박고 자라온 것이 詩다. 하기 때문에 시조라는 화목은 자유시에 비해 그 줄기가 '意'가 아니라 '志'이고 그 꽃이 '論'이 아니라 '觀'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시조의 3장6구는 잘 구워낸 이조백자 같기도 하고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연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른 이들은 틀이 좁아 할 말을 다 못 담겠지만 나는 천지의 말씀을 다 내려앉혀도 오히려 남은 이 그릇에 채울 말을 찾지 못한다. 시조란 비단 창법에서 뿐 아니라

시작법에 있어서도 거성과 치성이 따로 있는 법인데 시인은 이미 드는 말과 놓는 말에 잘 길들여 있는 것을 본다. 하필 시조뿐이겠는가 인생 백전의 길에 설 자리, 앉을 자리가 따로 있고, 나갈 자리, 멎을 자리가 따로 있다. 이것은 어쩌면 지관으로도 통한다. 높은 자리에 있어본 적 없는 그에게 백수문학관 까지 세워 준 것도 다 '맑은 詩정신' 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조에 담겨져야 할 것을 강조하신다.

1. 흘림새(부드러움)가 있어야 한다.
2. 엮임새(가락)가 있어야 한다.
3. 마디(절)가 있어야 한다.
4. 풀림새(이해)가 있어야 한다.

▣ 가까이 지냈던 분

작고하신 마산출신 박재삼시인은 늘 문단에서 친구로 대화 하셨는데 박재삼 시인은 총포로 사나운 짐승을 잡는 포수가 아니라 여울목에 그물이나 통살을 쳐 놓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부 같은 시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할 일은 그물이나 통살을 아무 물에나 친다고 고기가 들어와 주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의 통로를 알아서 그물이나 통살을 쳐야 고기가 걸려드는 것이다. 이 시인은 물고기가 흐르는 목, 다시 말해서 인정의 흐름, 천지의 기미幾微, 무엇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차리는, 말하자면 모든 사물과 통화를 가장 잘하는 달인達人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별로 힘을 안들이고도(?) 고기를 잘 잡아내는 달통한 어부라고나 할까. 그러기에 그의 시에는 억지를 부린 흔적이라고는 없다.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눈곱만큼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락(내재율)에 자주가 절로 따라온다. 제자로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며 따르고 호방한 성격의 작고한 경남 고성의 서벌 시인 등과 가까이 지냈다. 지금도 두 분을 그리워하고 계신다. 고향친구로는 김천의 향토 사학자 이근구 선생님이 계시다. 늘 고향을 걱정 하시고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며 문화적 소양이 높아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늘 함께하신다.

서울자택에서 최정란, 김영주, 백수선생님, 장남 정경화시인, 황간역장 강병규

▣ 제자와 지인들

시조시인으로서는 아마도 노산 이은상 이후 7,80년대 시조문학을 이끌면서 현역 시조시인은 거의 백수선생의 제자다. 그런데도 백수선생은 티 안내고 늘 뒤에 숨는다. 초야에 묻혀 '보리밥에 물 말아 된장 먹는' 스타일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뵈도 늘 조용하시다. 그러나 가슴속은 詩作의 요동치는 내부폭발로 시를 안 쓰면 안된다. 그의 특이한 이력이 그렇게 만들었다.

선생님의 현재 세수가 97세이시고 아직도 정정한 모습이니 선생님의 자호처럼 백수는 넘게 사실 것이다. 지금도 같이 자리를 하면 기억 속의 모든 시들을 꺼내어 한바탕 시 강좌를 하신다. 그러다 그것도 시들해지시면 흘러간 옛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어린애처럼 조르신다. 이러한 선생님의 순수함과 유머 감각이 건강과 장수를 지속하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선생님의 삼오야서 시실에는 김천 주변의 시심을 가진 후학들을 모아놓고 시론강의를 자주하시고 고향의 일꾼들을 키워야 한다고 "시를 쓰려면 미쳐야 한다 미쳐라 "하고 외치셨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영주 시인과 영동의 장지성, 최정란 시인을 자주 김천으로 불러 식사도 베풀어주시고 대항면 백운리의 찻집이름도 지어주신 제2의 백수문학관격인 자명찻집이며, 교동에 있는 연화지 연못의 흐드러지게 벚꽃 핀 날에는 몽돌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담을 들려주시던 그 날의 정경을 떠올린다.

제1회 수안보 온천 시조문예축전에 참가하여 문인들과 함께

최근에는 평소 좋아 하시던 곳이라며 충주 수안보 온천욕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상록호텔의 시인사장 김락기(한국시조 문학진흥회회장)님이 주선한 전국의 문인들과 함께하는 문학행사에 김천시인 김석인과 이상구, 영동시인 최정란과 수원시인 김영주 옥천시인 조경순, 장남과 막내 따님과 두세 번을 다녀오시며 계속 사장으로 재직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자주 오고 싶다고 하셨다.

선생님과 같이한 숱한 세월들...

언제나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듣는 편이다. 선생님은 메모지나 참고 자료가 필요 없으셨다. 모든 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 그저 끄집어내시면 되는 것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 전남 강진의 김영랑문학관을 꼭 한 번 더 다녀오고 싶다는 선생님과 마주하며 어느 문학 개론에도 찾을 수 없는 진곡하고 구수한 시담을 또 들을 수 있겠지 하는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1. 시는 미쳐야 쓸 수 있다.
2. 시는 경經이 되어야 한다. 불경 성경 할 때의 경을 말한다. 경에는 기도가 통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말 가지고는 시가 안 된다.
3. 요즘은 동시를 많이 쓴다. 초등학교 학생 머리부터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4. 시인은 이불 덮고 자나 하늘 덮고 누워야지. (시인은 옹졸해서는 안 된다.)
5. 시조는 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 천격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산문이 된다.
6. 시어는 절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실하지 못한 말은 퇴고에 퇴고를 거듭할 것.(예) '한평생 고향집 지키며→살아생전 고향집 지키며) 그렇지 않으면 산문이 된다.
7. 시는 적정(적중?)해야 한다. 적정이란 지팡이를 꽂으면 지구 자전도 못 돌게 만드는 것이다.
8. 시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누구 손에 달린 거지. 오브제가 누가 요리하느냐에 달렸다.
9. 천부적인 시인이라는 말에 저는 글 쓰는 재주 밖에 없는 백치이다.
10. 시조형식의 파격에 대해서은 한 가지를 버려서 열 가지를 얻을 수 있을 때만 파격해야 한다. 파격을 잘못하면 인대가 늘어나듯이 쓸모 없이 된다.
11. 세계화 시대에 한국시로서의 시조의 앞날은 밝다.
12.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가 온다.

무릇 시 그 중에서도 시조는 민족 운율의 大宗이다. 이 譜曲을 採譜하는 데는 어떤 잔꾀나 잔재주의 손놀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어느 땅에선가 대방의 명가 가 나타나 주어야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동안 우뚝우뚝한 명 시인이 산맥을 짓고 더러는 가기도 하고 더러는 있기도 하나, 그러나 아직 시조는 미완의 궁궐이다. 앞으로 누가 있어 이 민족 역사의 대역을 맡아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우리 형제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조는
우리 정신의 본향이요,
우리 人性의 本流요,
우리 생활의 내재율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름(流)이 있고, 굽이(曲)가 있고,
풀림(解)이 있는 우리 시조는 가락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산천이요,
우리 강산이라는 것이다.
우리 고향이 우리들의 心鄕이듯이
우리 시조는 우리 정신의 본향이다.
제 나라 민족시를 모르는 민족이 어떤 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만이 시조를 모르고 있다.
제 나라 민족시를 모르는 민족은 영원한 실향민이다.
이것은 문화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시조를 찾아 국적을 찾고 민족의 자랑을 돌이키자.

▣ 시세계

투철한 자연관조와 전통적 서정세계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작품은 대상을 절묘한 시적 상상력으로 변용시키거나 개성적 표현기법에 의해 심상화시킬 뿐 아니라 시조 본래의 운율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자유시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서정시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평이다.

백수 정완영은 60년대 초 청마 유치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지를 통해 데뷔하고, 아울러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함으로써 그 새로운 날개를 번뜩이기 시작하였다. 그 분이 마흔 셋 일 때 등장 하였으니, 문단 진출이 꽤 늦었던 셈이다. 문단진출이 늦은 것은, 큰 세월의 줄기에 볼 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분의 등단 후 질이나 양에 있어서 鷄中鶴으로 엄청나게 활동 한 것이다. 그러므로 늦게 출발했다는 것은 백수에게 있어서는 어리고 풋풋한 날개짓 보다는 大鵬이 비약을 기약해 준 것이 되었다. 그것은 완성으로 성숙하는 은밀한 길을 터주고 있었던 것이다. 백수는 시조를 신앙 이상으로 공들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조를 말할 때, 가람과 鷺山을 말하고 그 뒤를 이어 草汀과 鎬雨를 들고 그 다음에는 백수를 세우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시조의 초창기, 계승기, 완성기라는 뜻과 별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세시기를 두고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과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서두를 열어 운을 뗀다는 것이 초창기요, 그것을 발전시키고 상의 부피를 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 정리하는 완성기에 이르는 것이다. 백수는 짧은 우리 시조사에 볼 때 빼어난 봉우리일 것이다. 다른 선배들은 시조 이외에 길을 열어 한 사람의 능력을 과시, 분산한 바가 있거니와, 그는 오로지 공공히 시조 한 길에만 전력투구하였던 것이다.

시란 대개 말씀의 절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각이라는 뜻이니 그 사람의 시는 그 사람의 말씀인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시란 그 자의가 뜻해 주듯 말씀(言)의 절(寺)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각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말씀의 종교라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시란 인생의 길에 있어서 지고지순한 오솔길이어야 한다. 시인은 남달리 꿈 많은 소년시절을 보냈었다. 예컨데 우리 집 살구나무가 꽃가지를 흔들어야 겨우내 잠들었던 하늘빛이 깨어나는 줄 알았었고, 엄마가 빨래를 헹궈야 개울물이 환하게 열리는 줄 알았었다, 그뿐인가 종다리 울음소리가 보리 목을 뽑아 올리는 줄 알았으며, 직지사 인경소리가 연못에 날아와 앉아 연잎으로 피어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어 난초는 심심하여 꽃 피운 거라' 어느 노 시인은 그 부드러운 풀 한포기가 천심을 견주고 앉아 있는 허심을 이렇게 염송했다. 귀 기울이면 딩그렁 풍경소리가 들여 옴 즉도 하잔하는가?

대체 시란 무엇인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어내는 귀요, 보이지 않는 허심을 보아내는 눈이요 맡아지지 않는 향기를 맡아내는 코가 아니던가 그리하여 마침내 바둑돌이 정석을 놓듯 하늘과 땅 사이에 정심의 자리를 얻어 앉는

것 아니 모든 사물로 하여금 정처를 얻어 앉히는 것 무어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모자라면서도 나누어 쓰는 유족한 생활 가난하면서도 마음 넉넉한 가멸한(富) 인정 그리하여 가난도 불씨 나누듯 나누어 썼던 것이다. 울도 담도 없이 터놓고 지냈던 것이다.

시조는 말로만 쓰는 시가 아니라 말과 말의 행간에 침묵을 더 많이 심어두는 시. 내가 심고 갈 묵언은 먼 후일 어떤 모습으로 하늘 아래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창작에 대한 욕구는 높았지만 백수는 여느 작가들만큼 손놀림이 자유롭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글을 쓰는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백수는 고문 후유증으로 손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 백수가 작품 활동을 했던 2013년까지 대부분의 작품을 컴퓨터나 타자기로 써야만 했다. 백수는 수많은 작품을 남긴 시조시인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천수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특한 문학세계도 주목할 만하다. 백수의 문학세계 밑바탕에는 유 · 불 · 선이 녹아있는 것이 특징인데 작품 상당수가 세상을 관조하는 느낌이라는 평가다. 이는 백수가 시조시인이라는 한길만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수는 40대에 등단한 후에도 오직 시조시인으로만 살았다. 4남2녀의 자녀를 오로지 시인의 창작활동으로만 키워낸 것이다.

작가의 생전에 문학관을 세우는 일은 흔치 않지만 김천시 대항면의 백수문학관은 이러한 통념을 송두리째 깼다. 2008년 개관한 백수문학관에는 백수의 작품과 문학적 배경을 비롯해 여러 문인과 교류했던 서신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백수는 40대에 이르러 김천에서 서울로 상경했는데 당시 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다. 가지고 있던 작품집 등 책의 양이 너무나 많았기에 서울의 좁은 집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하던 백수는 평소 교분이 있던 직지사의 회주 녹원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녹원 스님은 백수보다 어렸지만 백수가 불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대화를 나누던 말동무였다. 부탁을 받은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은 흔쾌히 백수의 자료들을 보관해 주기로 한다. 녹원 스님은 직지사 만덕전 대들보 위의 빈 공간 〈수장고〉 에 백수의 자료들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만덕전은 녹원 스님이 중창불사(절을 새로 고쳐 지음)를 할 당시 가장 애착을 두었던 건물이다. 녹원 스님은 만덕전의 지붕과 대들보 사이의 공간에 백수의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 소중히 보관했다

이 자료들은 백수문학관 개관 1년 전인 2007년 여름 다시 빛을 보았다. 백수의 제자들이 직지사로 찾아가 일일이 스승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현재 백수는 현대시조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시조를 대중적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금도 문학관에 가면 '시를 쓰는 순간만 살고 싶다'던 백수의 작품세계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현재 김천직지사 경내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백수문학제가 시행되었고 제10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과 제1회 백수시조문학상은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려 시조문학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문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케 하는 등의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약 력

시조 시 〈엄마 목소리〉와 〈조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수 정완영 선생'은 1919년 경북 김천시 봉산면 봉계에서 출생하여 봉계공립보통학교 시절 여름 홍수로 농경지가 유실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하에서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선생의 시를 더욱 빛내고 있다.

1974년, 제3시집, 『失日의銘(실일의 명)』 출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祖國(조국) 수록과 1983년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분이네 살구나무' 작품 수록,과 1984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父子像(부자상)', 1987 초등학교 국어 6학년 2학기에 '바다 앞에서' 작품 수록, 2007년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봄 오는 소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풀잎과 바람' 중학교 1학년 2학기 '배 밭머리', 중학교 1학년 '호박꽃 바라보며', '물수제비'등의 작품이 수록 되었다.

시인 백수정완영선생의 경력으로, 1946년 향리에서 '詩文學구락부' 발족 이후, 1947년 동인지 출간, 이호우와 '영남시조문학회' 창립, 1992년 한국시조인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시조인협회 고문직을 했다,

1948년 작품 '祖國(조국)'창작, 이후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 '해바라기' 당선,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 일보 신춘문예 당선, 1962년 현대문학 '애모', '강'추천,

포상으로 1974년 한국문학상 수상, 1979년 가람시조문학상 수상, 1984년 제3회 중앙일보 시조대상 수상, 1989년 제5회 육당문학상 수상 했으며, 1995년 은관문화훈장 수상, 1999년 제2회 만해시문학상 수상, 2003년 문화공보부 '한국 근대, 현대사 증언 1차년도 30인 채록서업 선정' 2004년 제1회 육사문학상 수상, 2007년 제5회 유심특별상 수상, 2008년 제13회 현대불교 문학상 수상,2010년 제4회 백자예술상 수상, 2011년 제2회 이설주 문학상 수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문학인으로서의 기량을 보여 주고 있다,

백수선생의 시조집은, 1969『採春譜(채춘보)』, 『墨鷺圖(묵로도)』, 『失日의銘(실일의 명)』, 『산이 나를 따라와서』, 『꽃가지를 흔들듯이』, 『백수시선』, 『蓮과 바람』, 『蘭보다 푸른 돌』, 『오동잎 그늘에 서서』가 있다,

또 동시조집으로 『엄마 목소리』와 『가랑비 가랑가랑 가랑파 가랑가랑』, 『사비약 사비약 눈 』, 『백수정완영 동시조선집』은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까지 어릴 적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세월이 무엇입니까』외 다수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시조가 찬불가로도 만들어져 불리워지고 있고 현재 가곡으로 만들어져 애창되고 있는데, '애모, 조국, 청추에, 가을맑은 날, 감꽃, 적막한 봄 등이 있고 동시조도 나래시조문학의 시노래 보급운동으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동요가 50여 편에 이른다.

▣ 백수 문학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1번지에 위치한 백수문학관은 부지면적 3587㎡, 연건축면적 60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한식 기와 형태의 건물이다. 국비 등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1월에 착공한 뒤 같은 해 12월 10일 개관했다. 도내에 있는 문학관 중 가장 최근에 건립된 것이다.

백수문학관이 주목 받는 이유는 살아 있는 시조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라는 점이다. 문학관 한 켠에는 집필실이 따로 마련돼 있어 그의 창작활동을 돕고 있다.

집필실 외에도 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과 문학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 3천여 점의 기증 도서가 비치된 자료실, 세미나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시실은 총 8개 코너로 나눠진다. 처음 전시실에 들어서면 시인의 흉상과 연혁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빼곡히 적힌 연혁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그의 시집과 서각, 사진 등의 전시물이 보이고 커다란 선생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옆에 적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시어'라는 문구가 그의 작품을 대변하는 듯하다.

이밖에도 구상, 박목월 시인 등이 보낸 서간문과 시인의 훈장, 일기장 등의 소장품이 전시돼 있고 《조국》, 《모과》, 《을숙도》, 《추청》, 《겨울나무》등 그의 대표작을 적어놓은 커다란 패널이 풍경사진을 배경으로 걸려 있다. 또 시인의 실제 창작공간을 재현한 코너가 전시실 중앙에 마련돼 있어 그의 창작모습을 짐작케 한다.

전시된 자필 문건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꼼꼼하게 써내려 간 일기장이다. 1960년대 신춘문예 등단 이후 거의 매일 일기 형식의 글을 써오고 있으며, 아흔여섯의 나이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열정이 묻어나는 부분이다.

무료 관람. 문의: 054)436-6834.

황간역갤러리 백수정완영시화전과 음악회 – 문인들, 성악애호가님들과 함께

주요작품

감꽃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보는 이도 없는 날에
푸른 산 뻐꾸기 울고 감꽃 하나 떨어진다
감꽃만 떨어져 누워도 온 세상은 환하다.

울고 있는 뻐꾸기에게, 누워 있는 감꽃에게
이 세상 한복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기가 그 자리라며 감꽃 둘레 환하다.

조국

(앞 '초심자를 위한 시조입문 강의' 사례 게재 참조)

고향생각

쓰르라미 매운 울음이 다 흘러간 極樂山 위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걸려 사윌 줄을 모르네.

洞口밖 키 큰 장성 十里벌을 다스리고
푸수풀 깊은 골에 시절 잊은 물레방아
秋風嶺 드리운 落照에 한 幅 그림이던 곳.

少年은 풀빛을 끌고 歲月 속을 갔건마는
버들피리 언덕 위에 두고 온 마음 하나
올해도 차마 못 잊어 봄을 울고 갔더란다.

오솔길 갑사댕기 서러워도 달은 뜨데
꽃가마 울고 넘은 서낭당 제 철이면
생각다 생각다 못해 물이 들던 도라지꽃.

가난도 길이 들면 양처럼 어질더라
어머님 곱게 나순 물레 줄에 피가 감겨
靑山 속 감감히 묻혀 등불처럼 가신 사랑.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잖은 억만 시름
고래등 같은 집도 다락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르 돌고 보면 人生은 回轉木馬
한 목청 뻐꾸기에 고개 돌린 외사슴아
내 죽어 내 묻힐 땅이 구름 밖에 저문다.

애 모

서리 까마귀 울고 간 북천은 아득하고
수척한 산과 들은 네 생각에 잠겼는데
내마음 나뭇가지에 깃사린 새 한 마리

고독이 연륜마냥 감겨오는 둘레가에
국화 향기 말라 시절은 저물고
오늘은 어느 우물가 고달픔을 긷는가

일찌기 너 더불어 푸르렀던 나의 산하
애석한 날과 달이 낙엽지는 영마루에
불러도 대답없어라 흘러만 간 강물이여.

을숙도

세월도 낙동강 따라
칠백리길 흘러와서
 마지막 바다 가까운
하구에서 지쳤던가

을숙도 갈대밭 베고
질펀하게 누어있데

그래서 목로 주점엔
대낮에도 등을 달고

흔들리는 흰 술 한 잔을
낙일 앞에 받아놓으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 와 떨어지데

백발이 갈대밭처럼
서걱이는 노사공도

강물이 강이 아니라
하루해도 강이라며

김해 벌 막막히 저무는
또 하나의 강을 보네.

시비

1.김천시민의 탑명(1975)
2.김천시 남산공원 고향생각 시비 건립(1982)
3.직지사 경내 직지사운 시비 건립 (1994)
4.김천시정 50년 시민대종의 종명(1999)
5.김천시 고향마을 본가 터 사모곡 시비 건립(1995)
6.김천시 봉산면 고향마을 고향가는길 시비건립(2000)
7.김천시립 문화공원 20인 시비 중 고향생각시비건립(2004)
8.백담사 만해마을 분이네 살구나무 시비 건립(2007)
9.서귀포 시인공원 바람 시비 건립(2008)
10.경남 고성 늘봄예술촌 감꽃 시비(2011)

참고문헌

정완영시조의 고향성연구—김민정 2009
박재삼『백수 그 인간과 문학』,『현대시조』, 1989 여름.
임종찬『현대시조론』, 국학자료원, 1987.
이숭원『현대시조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높이』,『열린시조』제9호, 1998 겨울
김대행『따뜻한 法語에 이르는 길—정완영론』,『한국현대시조작가론 Ⅰ』, 태학사, 2002.
김천의 문중이야기(12)영일정씨 한국사빛낸 정완영 정승화(2015.8.4.매일신문)